

마음 · 세상 · 자연

# 맑고 향기롭게

2013. 9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매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2013 / 9

다시 읽는 산방한담 4 산너머 시는 노승

처음 마음으로 8 순간순간 최선의 삶을!

한국의 탐 15 김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18 아름다운 마무리 - 이종해 어르신

가슴이 따뜻한 기업들 20 밝혀드립니다. 문턱없는병원,아라빈드 안과병원

참교육 이야기 26 잃어버린 교육을 찾습니다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30 직장의 현실, 젊음의 현실 - 미생

차나음가득한시간 34 흥차 이야기 ④

천진난만 37 침묵을 사랑하라

향기나는 우체통 38 자애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1 중앙, 대구, 경남, 부산, 광주, 대전모임

길상사 소식 46



표지 사진 · 회원

개울가에서 가을에 피어난  
진남빛 용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네 방울  
구경하지 못했는데  
문 좀 열어볼래”

-법정-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3년 9월 1일 발행 / 통권 223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

# 산 너머 사는 노승

글 • 법 정(法 頂)

가을바람 불어오니 일손이 바빠진다. 우선 이구석 저구석에 놓인 여름의 부스러기들을 치워야 한다. 드리웠던 밭을 걷고 투명한 가을 햇살에 새로 창문을 바른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고추 밭에 남은 끝물 고추도 마저 따다. 호박도 거두어들인다.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균불을 지펴야 하므로 나뭇간에 작과 빨감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뜰가에 있는 몇 그루 소나무와 단풍나무의 가지치기도 한다.

그 동안 왕성하게 자라 한테 얽힌 가지들을 따내어 수형을 잡아 준다.

폭우로 밀려 나간 개울가 디딤돌들 물 속에 들어가 끌어올려 제자리에 놓는다.

아무리 오두막일지라도 집을 한 채

지니고 살려면 이런 일은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또한 사람 사는 일 아니겠는가.

태풍이 지나간 후 한 노스님이 사는 산 너머 일이 궁금해서 며칠 전 찾아나섰다. 영동 산간지방은 눈과 비는 많이 내려도 바람 피해는 별로 없다고 한다. 높은 산으로 첩첩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제아무리 거친 바람도 기를 퍼지 못한다.

“스님, 계세요?”

서너 번 인기척을 냈지만 아무 대꾸도 없었다.

밖에 나가고 안 계신가 싶어 뒤걸음로 돌아서니 저 언덕 위 소나무 아래 정좌하고 계셨다.

한 손에 단주(短珠)를 들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나는 숨을 줄이고 바라보았다.

소나무 아래 반석에 방석을 깔고 선정(禪定)에 든 모습이 내 눈에는 거룩함보다 아름다움으로 비쳤다.

수행자가 아무 잡념없이 무심히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은 참으로 천연스럽고 아름답다. 선원에서 여럿이 한 방에서 참선하는 모습도 보기 좋지만 거기에는 긴장감이 서려 아름다움은 덜하다. 여럿과 홀로의 그 분위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따금 서울 광화문 거리에 있는 교보빌딩에 올라가 치료를 받는 단골 치과가 있다. 지정석은 아니지만 맨 안쪽에 있는 방이 내게는 익숙하다. 창으로는 왼쪽으로 이순신 동상이 밭아래로 내려다보이고 멀리 인왕산이 들어온다. 의자에 앉으면 정면에 몽크가 그린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이 걸려 있다. 파리의 로맹 미술관에서 생각하는 사람의 실물을 보기도 했지만 몽크가 그린 이 생각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

는 우리 ‘미륵반가사유상’이 겹쳐서 떠오르곤 한다.

똑같이 생각하는 사유상을 다루고 있는데 동서양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로맹의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고뇌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만큼 그 모습이 어둡고 무겁다.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그의 고뇌가 어둡고 무겁게 내게 묻어오는 것 같아 내 기분 또한 가볍지 않다. 내 편견일까.

그러나 미륵반가사유상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불상이 머금은 잔잔한 그 미소가 내게 읊어오는 것 같아 마음이 가볍고 그윽해진다.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명상하는 모습이다.

똑같은 사유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동양과 서양은 그 표현 방식이 이와 같이 다르다. 문화의 차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몽크의 그림이 걸린 그 방에서 치료를 마치고 원장인 윤박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도 “참 그렇군요”라며 공감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일본 교토에 와서 고류지에 모셔진 미륵반가 사유상을 보고 크게 감탄한 바가 있다.

일본에서 국보 제1호인 이 미륵반가 사유상은 백제 사람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야스퍼스는 이렇게 숭회한다.

‘나는 지금까지 철학자로서 인간 존재의 최고로 완성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접해왔다. 옛 그리스 신들의 조각도 보고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수많은 뛰어난 조각의 상도 보아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완전히 초월하지 못한 지상적이고 인간적인 체취가 남아 있다. 그 어떤 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상적인 감정의 자취를 남긴 세속적인 표현이지 진정한 인간 실존의 저 깊숙한 바닥에 까지 도달한 자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이 미륵반가사유상에는 완성된 인간 실존의 최고이념이 남김없이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지상의 시간적인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 도달한 가장 청정하고 원만한, 그리고 보다 영

원한 모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오늘에 이르도록 수십 년 철학자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이처럼 인간 실존의 참으로 평화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예술품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이 불상은 우리 인간이 지닌 마음의 영원한 평화를 남김없이 최고도로 표현하고 있다.’

야스퍼스가 이와 같이 감탄해 마지 않은 사유상은 다름 아닌 신라나 백제 때 우리 선인들의 모습이다. 그 후손인 현재의 우리들 모습은 어떤지 한 번 돌이켜 볼 일이다. 오늘 우리들의 얼굴 모습을 보고 옛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영상 치료'라는 것이 있다. 자비스럽고 온화한 모습을 항상 가까이 대함으로써 거칠어진 정신과 불안정한 정서를 치유하는 새로운 의술이다. 그러나 뜻이 있는 사람은 어떤 대상을 보고 치유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자비와 온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나무 아래 홀로 앉아 무심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와 같은 일상적인

집중과 정진이 아름다움을 만들고 자 했던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스럽고 온화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찾아야 할 것은 외부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앞서 간 이 아니라 이미 존재해온 우리 자신이다. 들의 발자취가 아니라 그분들이 찾고자  
- 홀로사는 즐거움 중에서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운영방침

첫째, 모든 불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아름다운 도량 둘째, 정혜결사의 정신을 이은 서울시민의 상설 수련도량 셋째,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도량 넷째,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위해 봉사할 보살대중의 큰 터전 다섯째, 승속이 함께 경영하는 맑고 투명한 운영체제



### 길상사 참배객 유의사항

- ① 도량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 ② 도량 안으로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 ③ 지나치게 노출된 옷(반바지, 배꼽티, 소매 없는 상의[나시]등)이나 슬리퍼를 신고 경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 ④ 사찰은 공원이자 유원지가 아닙니다. 자리를 깔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없습니다. 조용히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⑤ 항상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선수행과 기도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스러운 행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 순간순간 최선의 삶을!

글 • 덕 윤(德 耘)

날이 무척 덥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에는 산으로 들어가 숲이 있는 나무 그늘아래에 앉아서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더위는 어느새 사라지고 청량한 느낌이 듭니다. 맑게 흐르는 물을 보고 있거나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면 어지럽던 마음이 가라앉으며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연의 소리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그 자체가 온전한 조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으면 항상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자연의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무리 좋아하는 음악이라도 계속 듣고 있노라면

질리게 되고 너무 들으면 그것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연의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종일 듣고 있어도 싫지가 않습니다. 밤낮없이 흐르는 물처럼 우리 인생도 어디론 가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피어나는 꽃들도 항상 새롭게 피어납니다. 순간순간 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길로 보기에 오늘 피어있는 꽃이 어제의 그 꽃과 같지만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어제와 또 다른 향기와 빛깔을 머금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순간순간 죽으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

의 나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오늘의 나는 전혀 새로운 나입니다.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살고 나면 새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제의 생각이나 의식 혹은 삶의 양식이 즉 과거의 내가 오늘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란 게 살다보면 비오는 날도 있고, 갠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하늘의 표정과 비슷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흐름을 하루만이라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늘 같은 마음의 상태를 지니기는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뀝니다.

수시로 변하는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 어떤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생과 사의 갈림은 한 호흡에 달려있습니다. 숨 한번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한계상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 있어서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지만, 살만큼 살다가 이 몸을 바꿀 때는 누구나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인류사회에 큰 재산을 쌓은 사람도 많았고, 명성을 쌓은 사람도 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와 명성과 함께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간 길을 모릅니다. 노인도, 젊은이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 있는 이도 죽음 앞에서는 굴복하고 맙니다. 우리의 목숨은 호흡하는 사이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한 사회가 유지되려면 공공의 질서

가 필요하듯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만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나름의 삶의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삶의 질서가 없다면 차선을 이탈해서 아무 곳이나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숫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죽음의 왕에게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열라대왕의 눈에 띄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고집하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텅 빈 것으로 보라. 이처럼 세계를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볼 수 없다.”

자신을 고집하는 편견, 자기중심적으

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기준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의 통로가 열립니다. 또한 항상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텅 빈 것으로 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때의 인(因)과 연(緣)에 의해 얽혀 있는 것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텅 비었다는 것은 실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실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인연(因緣)에 의해서 결합되어 나타난 모습일 뿐이지, 영원히 존재(存在)하는 실상은 아니다.’ 이처럼 세계를 보는 사람은 죽음이 왕의 눈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색즉시공(色卽是空) 즉 모든 것은 텅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인연에 의해 임시로 존재하

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집착을 버려라”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집착을 떠날 수 있는가? 그 답은, 본래 없는 것으로, 본래 텅 빈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상처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교가 너무 소극적이고, 편향적이며, 허무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견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매우 소극적이고 허무한 사고방식 같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지혜의 세계가 열려 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무심(無心)하게 해야 합니다. 무심(無心)은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잡생각이 없다는 뜻이며, 이는 어딘가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하니까 억지로 비

우려고 하면 그것 역시 하나의 번뇌 망상입니다. 저절로 비워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비울 수 있는가?

명상을 하던 일상생활을 하던 자기가 하는 일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십시오,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 앉으며 명경지수(明鏡止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무심(無心)상태라고 부르며 우리의 본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한 곳에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날뛰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원숭이는 한 곳에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니며 잠시도 가만있질 못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무슨 일을 하던, 그것이 기도이던, 절이던 독경이던 참선이던 순수하게 몰입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더라도 그 마음을 비울 줄 모르거나 자기의 본래 마음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헛된 것입니다. 절이나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비울 줄 알고 무심(無心)할 수 있다면, 온갖 갈등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그것은 수행자나 다름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염라대왕의 눈에 띄지 않으려면 세상을 텅 빈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듣고 지나치기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비우고 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내 마음을 얼마나 비우고 있는가, 살면서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거기에 집착해 자신과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집착하지 않고 훌훌 털고 살아가는가? 때때로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초하룻날 법회를 하는 것도 내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집착에서 거듭 털

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은 영원히 사는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이는 죽지 않겠지만, 게으른 이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옛 고승들이 말씀해 놓은 [장로계경 長老偈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루해가 길고 짧음을 물을 것 없이, 헛되이 지내서는 안 된다. 하루하루를 쓸데없이 지내버리면 그만큼 그대의 목숨이 소모되어 버린다.”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쓸데없이 소모할 것이 아니라, 귀중하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모하는 것과 주체적으로 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주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조주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12시각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12시각의 부림을 받거나와 노승은 12시각을 부린다.

그대들은 어떤 시각을 말하는가?”

조주스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시간을 쓸데없이 소모하는 것은 시간의 부림을 당하는 것이고, 주체적으로 시간을 쓴다면 시간을 부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24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정진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염불하고 참선하는 것은 수행(修行)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그때그때 챙겨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 목숨과 생사의 갈림길이 한 호흡에 달려있습니다. 숨

한번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저승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상하고 덧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그날그날 최선을 다해 살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또한 삶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열매에 씨앗이 박혀 있듯이, 삶속에는 죽음이 씨앗처럼 박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삶의 또 다른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나의 삶이 더욱 소중하고 빛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만 하고 죽지를 앓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지루할 것입니다.

또 삶과 죽음은 물체와 그림자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늘이 없는 물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그늘이 죽음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이 삶을 떠받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기에 죽음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을 헛되이 보내고 쓸데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생(生)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순간순간을 열심히 산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삶의 활기(活氣)는 어디에서 오는가? 삶의 활기는 이 몸뚱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활기는 삶의 의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힘이, 생명력(生命力)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내면의 힘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을 살 줄 모르는 사람은 즉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은 이러한 힘을 느끼지 못하고

살지만 제대로 삶을 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내면의 힘을 자기가 충분히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거듭 거듭 점검하고 또 감사하면서 창조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매일 매일 보람 있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상으로 마칩니다.

- 불기 2557년 7월 초하루 법문  
(2013년 8월 7일)

##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글 • 박희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문무대왕릉이 보이는 봉길대왕암(해수욕장)으로 나가는 국도14호선 좌측에 홀로 높은 단을 올린 곳에 커다란 똑같은 탑 2기가 서 있다. 이곳이 바로 신라 제31대 신문대왕이 부왕인 문무대왕을 위해 창건하고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은사라 이름 지은 절터(감은사지, 사적 제31호)다.

삼국유사에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고자 이 절을 짓다가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바다의 용이 되었다. 그 아들인 신문왕이 왕위에 올라 개요 2년(682년)에 공사를 마쳤다. 금당 문지방 아래에 동쪽을 향해 구멍을 하나 열어두어 용이 절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것이다. 이 절을 감은사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감은사지 금당터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금당의 바닥구조 또한 뿔돌을 놓고 그 위에 널돌을 얹어 바닥에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또한 용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문왕이 부왕인 문무왕이 용이 된 후 용으로 장식된 검은 옥대(玉帶)와 피리를 만들 대나무를 바쳤는데 옥대의 장식을 떼어 물에 넣으면 용이 나타나 파도를 일으켜 나라를 지켰으며, 선물 받은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불면 나라가 평안해졌다 하여 만파식적이라 이름 지었다는 기록도 있어 문무왕이 죽어서도 나라를 평안하게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감은사가 호국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감은사터의 금당터 앞 넓은 뜰에 나란히 서 있는 탑이 바로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이다. 2단의 기단(基壇)위에 3층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으로, 서로 같은 규모와 양식을 하고 있는 쌍탑

이며, 신라의 1탑 중심의 가람 배치에서 삼국통일 직후 쌍탑 가람 배치로 변화되는 최초의 배치라 할 수 있다.

감은사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새 나라의 위엄을 세우고, 당시 틈만 나면 동해를 통해 지속적으로 쳐들어오던 왜구를 부처님의 힘으로 지키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세워진 절로 이러한 호국사상은 탑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져 장중하고 엄숙하면서도 기백이 넘치는 탑을 세우게 되었다.

이 탑은 각 부분이 여러 개의 부분석재로 만들어 조립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감은사지 동탑

라 할 수 있다. 탑은 감은사의 창건(682년)과 함께 세운 것으로, 1959년 12월 서탑을 해체 수리할 때 3층 몸돌에서 정교하게 만든 금동 사리기(보물 제366-1호)와 금동 사리외함(보물 제366-2호)이 발견되었다. 1966년 동탑을 해체 보수할 때는 3층 지붕돌 상면의 사리공에서 금동 사리함(보물 제1359호)이 발견되었다.

화강암(花崗岩) 이중기단(二重基壇) 위에 세워진 방형(方形)중층(重層)의 이 탑은 동탑과 서탑이 같은 규모와 구조를 보인다. 하층기단(下層基壇)은 지대석(地臺石)과 면석(面石)을 같은 돌 12매의 석재(石材)로 구성하였고, 상층기단(上層基壇)은 면석을 12매로, 갑석(甲石)은 8매의 석재로 구성하였다. 하층기단의 탱주(撐柱)는 3주(柱), 상층기단의 탱주는 2주로 세웠고, 초층옥신(初層屋身)은 각 우주(隅柱)와 면석을 따로 세웠으나, 2층은 각면이 한 돌, 3층은 전체가 한 돌로 되어 있다. 옥개석(屋蓋石)은 받침돌을 별석(別石)으로 각층 4매씩의 돌로 되었다. 옥개석의 층급받침은 각층마다 5단으로 되어 있고, 상륜

부(相輪部)는 두 탑이 모두 노반(露盤)과 높이 3.3m의 철제(鐵製) 찰주(擦柱)가 남아 있다. 옥개석 받침을 층



감은사지 서탑

단식(層段式)으로 한 것은 전탑(塼塔)의 전단계(前段階)모습으로 추정되며, 탑의 전체 높이는 13.4m이다.

이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경주에 있는 삼층석탑들 중 가장 거대한 탑으로 동해가 보이도록 흙을 쌓아올린 높은 대지에서 하늘로 높이 솟아오른 모습은 한국석탑을 대표할 만한 우수한 석탑이라 할 수 있으며, 기단을 이중으로 하는 형식은 새로운 형식으로 이와 같은 양식은 이후로 한국 석탑의 규범(規範)을 이루는 것이 되어 통일신라 이후 이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많은 석탑불사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서탑 사리장엄구 (사진: 문화재청)

## 아름다운 마무리

### 9월의 결연 대상자 - 이종해 어르신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 매주 밑반찬을 전해드리는 가구는 현재 423가구이며, 이중 90가구는 전화 말벗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 단위로 안부 전화를 하며 친구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9월 결연 대상자 이종해(가명) 어르신 부부는 동대문구 이문2동에 살고 계신 결식이웃입니다. 어르신 내외는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지만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차길 옆 쓰러져가는 슬레이트집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종해 할아버지는 현재 85세로 뇌병변 1급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처럼 와병 상태에 계십니다. 의식도 없고 거동도

할 수 없으며 의사소통도 불가능합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서 소변 줄을 차고 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정정하셔서 8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월 70만원의 일자리를 다니곤 하셨지만 어느 날 새벽, 출근길에 동네 불량 청소년들에게 '묻지마 폭행'으로 뇌수술을 한 후 뇌경색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병수발을 해야 했던 할머니(79세)의 상심과 고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당뇨와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몸이 성하지 않았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경희의료원의 신경정신과와 비뇨기과의 외래 환자이신 이종해 어르신은 늘 위장약과 소화제, 감기약을 복용

하셔야 하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소화 불량으로 신체 조절이 안 되어 똥물을 그대로 이부자리에 배출하십니다. 이젠 할머니마저 치매 증상을 보여 요양보호사로부터 매일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 내외는 기초노령연금(1인당 9만원)과 막내아들이 한 달에 한번 보내주는 20만원 외에는 다른 소득원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업 실패와 아내의 가출로 고전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한 이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막내아들이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방문간호비 등의 의료비도 부담하고 있지만 부모님 부양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종해 할아버지는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오줌이 잘 나

오게 하기 위해 설탕물을 만들어 간병하고 있는데, 이젠 매달 한 포(3Kg)의 설탕구입도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병간호하다 탈이 난 오른쪽 어깨 관절염을 치료하고 싶어도, 물리치료비 2,500원을 지출할 처지가 안 되어 포기했다고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전화말벗 봉사자는 할머니로부터 "늙은이가 둘이면 서로 죽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집도 자식도 없는 독거노인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국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텐데,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아무런 사회보장제도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희망을 놓지 않도록, 더 이상 가족 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바랍니다.

- 성금 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맑고 향기롭게
- 거리캠페인 일정
  - 9월 14일(토) 지하철 2호선 신천역 ③, ④번 출구
  - 9월 29일(일) 길상사 경내



## 밝혀드립니다. 문턱없는병원 아라빈드Aravind 안과병원

글 • 변택주

지구촌에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될까? 앞을 아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한 인구에 가까운 4천 5백만 명 남짓하고,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억 3천 5백만 명에 이르는 데, 2020년에는 두 배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늙거나 영양실조에서 오는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는 사람은 실명자 가운데 80퍼센트나 된다. 흐려진 수정체를 맑은 인공수정체로 바꾸어주는 아주 정밀하지만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말끔히 나올 수 있다. 지만 수술에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아 그림 속 떡인 사람이 적지 않다.

### 입만 있고 일할 손이 없는 이들

1918년 타밀나주(스리랑카 및 해협



고빈다파 벤카타스와미(닥터 브이)

을 마주한 인도남부) 지방 작은 마을에서 농부 아들로 태어나 낮에 밭일을 돕고 물소 떼를 돌보며 주경야독으로 어렵사리 대학에 간 고빈다파 벤카타스와미(Govindappa Venkataswamy)는 1944년 의사자격증을 손에 쥐었다. 몇 달 뒤 영국군에 입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1947년 귀국한 뒤에 사촌누이가 셋이나 아이를 낳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기로 마

음을 굳힌다. 그러나 한 해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변형성관절염에 걸린다.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듯이 아팠다. 급기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꼬박 한 해 동안 고통스런 재활훈련에 힘입어 혼자 설 수 있게 됐지만, 손가락이 비틀어지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럽지 못했다. 멀쩡하다가도 어느 순간 몰아치는 극심한 고통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손가락 관절이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없게 된 고빈다파는 독학으로 안과 의사가 됐다. 마두라이 공립병원 안과 책임자가 된 고빈다파는 장애를 넘어서서 날마다 10여 명 남짓한 환자들을 수술했다. 그러나 찢어지게 가난한 환자들은 치료받을 돈이 없어 백내장이 일어난 지 몇 달 안에 시력을 잃고 돌레사람들에게 '입만 있지 일할 손이 없는' 자로 떠돌림 받고 있었다. 고빈다파는 마두라이 공립병원에서 일하는 20년 동안 두메산골에서는 살림이 어려운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 중앙정부 지원을 이끌어내 이동병원을 만들어 돕

다가 1976년 58살 나이로 은퇴했다.

그 뒤 하버드 대학에서 안과교수로 근무하던 여동생 낮치아르와 손잡고 만든 소득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 시력을 되찾아주려고 동생과 함께 사는 집에 침상 11개로 문을 연 자그마한 아라빈드Aravind 안과병원. 처음 이태 동안은 돌레 도움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스스로 힘으로 운영하려고 집 1층에 유료 병원을 세워 나온 이익으로 나머지 5개 층에서 무료 수술을 했다. 조그맣던 병원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 높고 가장 많은 백내장 환자를 수술하는 병원으로 커다랗게 자랐다.

아라빈드 안과병원은 치료비를 치를 힘이 있는 환자들이, 더 가난한 환자들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틀을 세우며 출발. 오는 환자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 몫을 내어 수술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도 재정 독립을 이룰 만큼 수익을 올려, 이태 뒤에 100여 개나 되는 병상을 갖

추고 이동병원도 여럿 만들어 두메산골에 사는 농부들에게 빛을 찾아줬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도 병원을 두 개나 더 열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직장을 잃은 사람 85퍼센트가 수술을 받고 직장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 나라도 어찌지 못한다는 가난을 보듬어 밝은 세상을 돌려줬다.

돈을 내는 환자가 35퍼센트인데 그나마 다른 병원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치료가 엄청나게 싸고, 나머지 환자 65퍼센트는 무료이거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치료비만 받는다. 그런데도 망하기는커녕 외려 더 커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라빈드 병원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절약 경영을 하고, 10시간씩 근무하며 아라빈드 철학과 기틀을 만들어냈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비용 절감과 표준화를 꼽는다.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걷어내 다른 병원에서 쓰는 비용 20퍼센트 남짓한 돈으로 운영하지만, 렌즈를 비롯한 핵심부품이나 도구는 으뜸 제품만 쓴다. 특이할

만한 일은 어느 병원에서는 의사 한 사람이 한 해에 백내장 환자 250에서 400명을 수술하는데, 아라빈드에서는 의사 한 사람이 한 해에 2,000명이나 되는 백내장 환자를 수술한다.

### 수술비 1800달러를 18달러로

그러나 백내장 수술을 하려면 150달러에서 300달러에 이르는 인공수정체를 사야하는 것이 걸림돌이었다. 64살에서 75살에 이르는 미국 인구 절반이 백내장을 앓고 있고, 해마다 130만 명이나 되는 환자가 수술을 받았다. 백내장 치료에 해마다 30억에서 40억 달러를 쓰는 미국은 인공수정체 생산업체들에게는 황금시장이었다. 그러나 인도는 사람 숫자는 많았지만 돈이 없어 매력이 없었기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아라빈드 병원 미국인 파트너 데이비드 그린은 생산업체들에게 인공수정체를 기증받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어느 날 기증을 멈출 때까지.

인공수정체를 써야 하는 백내장 수



컨베이어 수술실 광경

술에 드는 돈이 100달러로 한 사람당 국민 소득이 430달러(OECD 1980년 기준)인 인도에서 돈을 이만큼 낼 수 있는 사람은 50퍼센트도 채 되지 않았다. 문제 풀이에 골똥하던 고빈다파는 미국 여행 길 맥도널드 컨베이어 시스템을 보고 의료서비스에서도 맥도널드처럼 표준화된 대량생산시스템을 받아들여 원가를 낮추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보듬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병실과 병상에는 값이 가장 싼 자재를 쓰고, 병원에 환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진료 과정을 하나하나 분업해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냈다. 한 수술실 안에 침대를 여럿 두고 여러 환자를 한꺼번에 수술하는 구조. 수술대 두세 대 사이에 의사 한 사람

과 간호사 네 사람이 환자 두세 사람을 맞게 했다. 수술대 사이에는 360도 돌아가는 커다란 현미경이 놓여있어 의사가 환자 한 사람을 수술하고 나서 바로 현미경을 돌려 다음 환자를 수술한다. 의사가 인공수정체를 바꾸고 나면 간호사들이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술을 이어서 하게 해, 수술 시간은 줄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이어가는 백내장 대량수술시스템을 갖췄다. 이 방법으로 의사 120명이 날마다 7천 3백 명이나 되는 환자를 진료하고, 850명을 수술을 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인다. 기발한 발상을 해서일까? 사람들은 고빈다파 벤카타스와미를 첩보영화 007에 나오는 인물처럼 '닥터 브라이'라고 부른다.

어디 그뿐이라. 아라빈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값비싼 인공수정체를 품질은 높으면서도 값싼 인공수정체로 바꾸어 비용을 크게 낮췄다. 인공수정체 생산업체들이 기증하기를 멈추자, 아라빈드 파트너 데이비드 그린은 미국 아스카 재단 지원을 받아 1992년 세운 '오

로랩이 한 벌에 150달러 하던 인공수정체를 단돈 10달러로 줄이는 혁신을 이뤄냈다. 그 덕분에 미국에서 1,800달러에 이르는 백내장 수술비용을 18달러로 크게 낮춘 아라빈드는 30년 동안 2,200만 명에게 밝은 세상을 주었다. 이 가운데 60퍼센트는 기존 의료체제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특히 2006년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700만 명 가운데 살림이 어려워 수술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300만 명이 빛을 봤다. 그 바탕에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려고 흘린 땀이 적지 않았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거개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며, 해야 할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수술비가 싸더라도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아라빈드는 버스에 이동병원을 꾸려 환자를 찾아 나섰다.

### 한 해 이익이 1천 1백만 달러

아라빈드 그룹은 현재 안과병원을 다섯 개나 운영하면서 해마다 150만 명



아라빈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

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20만 건이나 되는 수술을 한다. 환자 가운데 47퍼센트에게는 무료로, 18퍼센트에게는 원가보다 싸게 받으며, 나머지 환자가 치룬 돈으로 살림을 꾸려간다. 그런데도 2006년에 490만 달러 수익을 내고 2009년에는 수입 2천 5백만 달러에 1천 1백만 달러나 이익을 남기며 수익이 꾸준히 늘고 있다.

자선병원으로 문을 연 조그만 병원이 놀라운 성공을 거둔 데는 닥터 브이 경영철학이 있다. “아픈 사람은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꾸준히 이윤을 내지 않고는 가난한 이웃을 한결같이 도울 수 없다.”는 더 놀라운 일은 병원에 오는 어느 환자에도 소득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

는다는데 있다. 닥터 브이는 말한다. “다른 사람 행동을 관리하는 일은 제 몫이 아닙니다. 제 일은 환자에게 빛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넉넉한 환자도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만, 환자들은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그렇기에 ‘무상 진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던 못사람 예상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적은 돈이라도 내려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병원을 ‘실명에 맞서 밝음을 찾아주는 병원’ 모

델이라고 추켜세운다. 요 몇 해 사이 캄보디아와 네팔, 이집트, 말라위에 아라빈드 안과병원 뒤를 따르는 병원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닥터 브이는 “우리는 우리 한계를 잊고 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일하려고 애쓰며, 실없이 겉으로 드러난 헛된 모습에 매이지 않고, 더 높은 수준에서 오는 헌신과 믿음으로 일한다. 지식과 능력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무언가를 결국게 만드는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빛을 찾은 이들 가슴에 여전히 살아 숨 쉰다.

### 향기가 묻어나는 이야기를 나누보세요.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 그리고 길상사 신도님 더 나아가 여러 독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향기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터에서 생겨나는 소소한 이야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가슴이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 자연을 아끼면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는 나만의 비결이나 수행과 수행 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느꼈던 내 마음 안의 깊은 충만함이나 내면의 깊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 원고를 보내주시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세요. 원고 채택 시에는 귀한 책 한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전자 우편 : clean94@hanmail.net

## 잃어버린 교육을 찾습니다

글 • 김용택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2012년 한 해 동안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무려 12,243명이나 됩니다.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1,196명이고요.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이 80%로 OECD 평균(고등학교 74%, 고등교육 31%)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초·중등학교의 전체 교원 수는 476,065명이나 됩니다.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

해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일반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해 교원 자격증을 받은 사람까지 치면 아마 수십만 명이 될 것입니다.

박사학위소지자, 고등교육이수자, 그리고 교원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교육은 무너지고 왜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어 갈까요?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다?’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학교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싫어 떠나는 학생도 있지만 2012년 고교 졸업자 636,724명 중에서 대학에 등록한 학생 수(진학률)가 71.3%입니다. 그

것도 2004년 79.7%에서 많이 떨어져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고 3 학생이 100% 진학하는 학교도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박사도 많고 교육자도 많고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은데 왜 교육은 이 모양일까요? 우리네 사회는 학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정교육도 사회교육도 무너지는 지 오래입니다.

보장되지 않는 특별한 날의 하루를 행복해지기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목적전치현상? 그렇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뀐, 먹기 위해 사는 지 살기 위해 먹는지 모르는 현상, 일하기 위해 사는 지 살기 위해 일하는지... 이 기막힌 목적전치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려 합니다.

###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에 관한 한 박사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문가들이 많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풀이해 볼까 합니다.

왜 교육을 해야 하는가? 옳고 그름과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서 하느냐고요? 가정에서 해야지요. 학교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가정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교사라고요? 자격증이란 무엇입니까? 국가가 법으로 정해 일정과정을 이수했다고 증명하는 게 아닌가요? 자격증이 없으면 교사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격증이 없는 예수님은, 부처님은, 공자 맹자님은 왜 스승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 삶을 안내하는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훌륭한

교사가 아닐까요?

## 학교가 무너졌다. 왜?

학교가 무너졌다고들 합니다. 무너졌다는 말을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교육이 무너졌으면 사랑하는 자녀를 당연히 학교에 보내지 않아야 하는데 학교는 지금도 문전성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까지 만원입니다. 도대체 학교는 무얼하는 곳일까요? 교육하는 곳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한번 교실 속을 들어다 보세요. 국어교육의 기초는 '말하기, 듣기, 쓰기'입니다. 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지만 말하기 듣기 쓰기를 잘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말을 잘 할까요? 바른 말, 고운 말을 쓸까요? 조리 있게 자기주장을 맞춤법에 맞게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가요? 요즘 학생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 욕설, 더듬고 빠르고, 은어(隱

語)까지…….

A4용지 한 장을 내놓고 주제를 쥐 글을 써보라고 해보세요? 한 반에서 한 장을 다 채우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듣기는 잘 들을까요? 그런데 이런 학생이 문법이며 고전이며, 정답을 맞히는 데는 귀신같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정답을 찾아내는 족집게처럼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는 열등생이 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를 풀이해 성적이 좋은 학생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시비를 가리고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제 인생 선생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라는 항의가 빗발칩니다. 지금 학교는 사람다운 사람, 인격자를 길러냅니까? 아니면 시험문제를 족집게처럼 잘 풀이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 사회는 어떨까요?

학교를 한 발짝만 벗어나면 학생들에게는 지뢰밭처럼 '위험지역'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가는 오락실, PC방, 노래방, 만화방, 오락실, DVD방은 안전할까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청소년들의 문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업주의가 청소년들의 세계를 침투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상업주의뿐만 아닙니다. 매일같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는 정치인들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학교가 길러낸 인간상이 저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에 교육자는 몸 둘 곳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정치인이 된다면……? 저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인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거짓말하고 법을 어겨도, 탈세를 하고 병역을 기피하고 부동산 투기에 논문 위조에 주가 조작까지……. 그것도 금방 탄로 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이며 돈이면 무슨 것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장사꾼들……. 사회며, 경

제며 종교며 문화 등 어느 한 군데라도 건강한 곳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에게 물려주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치며 경제, 사회, 문화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줄로 세우는 교육, 경쟁 지상주의, 성적 만능주의, 대학서열화.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니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니 하는 말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짓말입니다. 출세하고 사회적 계층상승이 눈에 보이는 데 누가 원칙만 고집하고 앉아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 선생님들이 삶을 안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원인치료를 하는 것, 그것이 교육도 살리고 아이들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 직장의 현실, 젊음의 현실 - 미생

글 • 서정민갑

웹툰으로 연재된 윤태호의 <미생>을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누적 조회수가 4억부를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를 모은 웹툰이니까요. 다음 웹툰의 방문자 수를 30% 늘리는데 혁혁하게 기여했다는 얘기도 있고, <미생>을 원작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한 영화가 100만 조회 수를 넘을 정도이니 이 작품이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기는 인기가 없다면 영화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지요.

예전에는 흔히 만화방이라고 불렀던 만화 가게에 가서 만화책을 보곤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만화를 봅니다.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가면 다양한 장르와 감성의 좋은 만화들이 준비합니다.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폭도 넓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에 웹툰은 만화를 접하기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굳이 만화 가게에 갈 필요도 없고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웹툰의 성공은 필연적이었던지도 모릅니다. 만화가 강풀의 성공은 웹툰과 결코 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미생>을 그린 윤태호 역시 웹툰을 통해 인기를 얻은 작가입니다. <미생> 이전에 그린 <이끼>도 웹툰으로 연재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중에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미생>이 인기를 끈 것은 단순히 웹툰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생>은 201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직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이들을 제외하면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삶, 어렵게 입사 시험을 보고 들어가 말단부터 경험해야 하는 직장 생활 말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택하고 싶지만 극소수의 프리랜서를 제외하면 자영업자이거나 직장인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시민 다수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입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그린 만화가 예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들어가 사업을 키우고 승승장구하는 야망 넘치는 주인공이 나오는 만화는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주인공은 대리만족이나 환상에 더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렇게 사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이가 지금 과연 몇이나 될까요? 부와

계급이 대물림되는 현실에서 재벌가의 후예가 아니라면 성공은 고사하고 평생직장조차 안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신도 되기 전에 정리해고 당하는 것이 훨씬 현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가 비정규직으로 설정된 것은 그것만으로도 와 닿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장그래는 애초부터 직장인으로 살아갈 준비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했던 사람이고, 프로기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둑과 함께 성장했던 장그래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바둑을 포기하고 뒤늦게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미생>은 시작됩니다.





이런 장그래의 모습에서 다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똑같은 직장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젊음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음은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그러나 장그래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장인의 고충만이 아닙니다. <미생>에서 윤태호가 공돌이로 보여주는 것, 한 순간도 잊지 않는 것은 장그래가 비정규직이고 대졸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가 수습기간을 거치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작품 속에서 장그래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그래는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수시로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행여나 정규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 희망과 절망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소리 내서 말하지 않는 사실, 어쩌면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현실, 비정규직의 비율이 절

반에 달하는 현실을 만화가 윤태호는 이렇게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윤태호가 비정규직 노동자 장그래의 불안정한 계약관계에만 이야기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의 권력관계와 인간관계를 담아내고 회사에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경이 무역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담아내는 기업 드라마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회사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존재합니다. 지위가 다른 여러 인물들, 성실한 사람, 약삭빠른 사람, 거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냉정한 사람 등등 다양한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 윤태호는 바람직한 직장인의 모습과 직장인의 윤리, 책임의식을 이야기 합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다른 이들과 협력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은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

게 합니다. 부하로서, 상사로서, 책임자로서, 동료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작품은 직장 생활을 배경으로 한 인간학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윤태호는 미친 듯이 일하고 성과를 위해 나아가는 인물이 아니라 냉정하고 합리적인 오상식 팀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그가 지지하는 직장인의 모델을 던지시 보여줍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회사 내의 권력다툼에서도 한 발 떨어져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 야망을 가진 이들의 결함이 가감 없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체면과 이익을 위해 부하 직원을 짓밟아 버리는 상사, 자신의 스타일만 고집하는 부하,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아집과 독선에 빠져 자멸해 버리는 상사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장그래는 비로소 성장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상적인 직장은 많지 않겠지만 한 사람의 직장인이 생의 가장 오랜 시간을 쏟아 붓는 직장 생활이 자신의 성장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오상식 팀장과 장그래는 유사 부자관계 같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오상식 팀장은 사회 초년생이고 아버지가 없는 장그래를 엄격하면서도 속 깊은 애정으로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버디 무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작품에는 대개의 드라마에 흔한 로맨스가 없습니다. 장그래가 정규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데에서 윤태호의 냉정함은 빛 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그래가 바둑을 통해 배웠던 것들도 의미 있게 활용됩니다. 바둑을 통해 극의 드라마는 박진감을 더하고, 고전의 향기 같은 가르침을 뿜아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현실의 반영이자 현실의 지침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해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작품을 통해 현실을 곱씹었고,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2014년 가을에 이어질 작품의 시즌 2가 지금부터 두근두근 기다려집니다.

## 홍차 이야기.4

글 • 문정숙

### 9. 인도 아쌘 차나무의 발견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차를 받아들인 곳은 영국이었다.

네덜란드를 통하여 1630년 경 독일과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 차가 소개되어 잠시 동안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맥주와 와인 등 자국의 음료를 선호했으며 대체 기호품으로 인기 있는 음료는 커피였다.

17C 중엽 네덜란드를 거쳐 차를 수입해왔던 영국이 중국과 직접적인 차 무역을 시작하여 18C 후반에 이르러서는 연간 8,000톤 이상의 중국차를 수입하게 되자 영국 정부는 차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그 당시 유럽에서는 차나무나 차의 재배에 관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고 차는 여전히 동양에서만 만들어지는 신비한 음료였다.

그런데 영국의 탐험가이자 식물학자인 로버트 부르스(Robert Bruce)가 영국 차 문화의 원조인 캐서린이 예단으로 가져온 인도 몸바이 지방(지금의 아쌘지역)에서 원주민이 마시는 차를 보고 아쌘종 차나무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지했으며 마침내 1823년, 아쌘의 오지에서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찾있이 작은 중국종의 차나무 밖에 알지 못했던 영국의 차전문가들은 일

이 커다란 아쌘 품종을 차나무라고 단정 짓지 못해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지만 이것을 홍차로 가공했을 때에 중국차보다 뛰어난 맛을 내는 우수한 품종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쌘지역은 광활한 밀립지역과 탁 트인 평야에 거대한 브라마푸트라 강이 흐르고 티베트 산맥의 비옥한 흙이 강 양편으로 운반되어지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곳으로 차재배에 적지임이 판명되었다.

브루스 형제는 4년 동안 아쌘의 밀립에서 차 재배에 대해 연구하며 원주민들로부터 야생차 만드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생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때마침 중국과 차 전매기간이 만료되어 수입에 어려움을 겪던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1834년, 인도에 차업위원회를 설립하고 중국의 차 종자와 노동력, 제다방법까지 모두 도입하여 차를 만들어 보았으나 실패의 연속이었다. 결국 지역종인 아쌘종을 심어 각고의 노력 끝에 1838년, 최초의 아쌘차 건본이 런던에 보내졌고 런

던의 업자들 사이에 호평을 받자 영국 정부는 아쌘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아쌘종의 경쟁력을 눈여겨 본 영국의 기업가들이 대거 차 재배에 참여하게 되고 민간회사인 '아쌘 컴퍼니'가 설립되면서 정글 개척에 코끼리를 사용하고 운반 수단으로 증기선을 이용하는 등 다원 조성이 더욱 확대되어 인도 홍차 산업이 본격화 되자, 그 때까지 유럽 시장을 100% 점유하며 은값처럼 비쌌던 중국차의 세계사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인도 아쌘차의 등장으로 영국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차 수입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생산 재배지를 갖춘 소비국이 되었으며 1860년에 이르러서는 인도 북부와 남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로 점차 재배지를 확장하게 된다.

홍차 가공 공정의 기계화로 품질이 향상되고 저렴하며 차의 풍미가 뛰어난 아쌘 야생차는 '빅토리아 티라 불리면서 상류층이 향유하던 사치품에서

모든 계층이 즐기는 영국의 범국민적 음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 10. 영국의 독특한 홍차문화의 형성

백색의 금이라 불리며 진귀하게 여겨졌던 중국의 자기를 귀족들이 앞다투어 수집하면서 시누아즈리(Chinoiserie)라는 붐이 일어 17-18C 유럽의 여러 나라에는 동양적 취미가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차를 선택한 것은 영국이었다.

근세 초기까지 식사문화가 대단히 빈곤했던 영국인들이 차를 동양에서 발견하게 되는 배경에는 차와 함께 도자기와 차를 마시는 예절이 있는 동양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1709년 유럽 최초의 자기 생산 비법이 밝혀진 후, 영국의 초기 도자회사들은 왕이나 귀족들의 경제적·정치적 배경과 권력을 바탕으로 창립되어 운영되었기에 중국 자기를 모방한 권위적이고 화려한 도자기가 주로 제작되었으나, 자기의 생산이 안정된 후에는 영국의 전통적인 미의식을 가미하여

독자적인 영국풍의 각종 테이블 웨어를 생산하게 된다.

즉 홍차 문화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홍차를 즐기기 위한 도자기 산업도 함께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아쌌차의 짙고 쓴 맛을 보완하고자 차에 밀크를 첨가하여 마시는 영국식 음다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이른 아침 눈을 뜨면서 즐기는 Early Morning Tea, 아침식사와 함께하는 Break fast Tea, 오전 11시경 휴식을 취하면서 Elevesnes Tea, 점심 시간에 즐기는 Lunch Tea, 오후에 마시는 Afternoon Tea, 저녁 이후의 After Dinner Tea 등의 티타임은 영국인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었다.

풍성한 티푸드와 아름다운 테이블 세팅이 유행하면서 영국은 홍차문화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다양하게 현대화된 영국의 독특한 홍차문화는 오늘날에도 차를 즐기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끝)

## 침묵을 사랑하라

맑은 만남



사람 사랑하고 내  
고양이도 함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많은 사랑의 말은 번드르르 흘러나오  
고 열매가 없다  
무엇보다 침묵을 사랑하라

## 자어

달 해

지난 초여름, 나는 생애 처음으로 적도를 넘었다. 그곳은 초겨울. 해가 떠서 북쪽에 떠있다 지는 나라, 호주였다. 여행이 목적은 아니었고 시드니 근교에 사는 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였다. 낯선 그곳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정말 많았다. 소소한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에서 나는 많은 차이를 느끼고 내심 놀라고 때론 감탄했다. 거기서 경험한 인상적인 일화 중에서 두 장면을 나누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사진 속에 보이는 바나나 한 자루다. 하루는 아는 선생님과 함께 시드니 외곽, 그분의 친구인 호주사람의 집에 가게 됐다. 녹슨 양철지붕에 마룻바닥에 구멍이 나있는 낡은 집을 사서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전직 변

호사 출신의 아저씨였다. 도착했을 때 집 바깥에 몽키바나나 같은 자그마한 바나나 한 자루 걸려있었다. 장식 치고는 특이한 풍경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심히 지나쳤는데 들어가 보니 넓지 않은 뒷마당에 바나나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호주가 열대도 아닌데 바나나가 자라다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주의 겨울하늘 색처럼 눈이 푸른 그는 오래된 집을 손수 보수할 계획에 부푼 듯 했다. 그런데 집을 나올 때 보니 바나나 옆



에 검정 비닐봉지가 매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골판지 조각도 같이 걸려있었다. 그래서 비닐봉지가 무엇에 쓰는 거냐고 물으니 그 아저씨는 바나나가 썩지 않도록 하려는 거라면서 옆에 걸린 골판지를 뒤집어 보여주었다. 그러자 거기에는 “HAVE A BANANA ^.^” 라고 쓰여 있었다. 알고 보니 뒷마당에 열린 바나나를 따서, ‘누구든지 가져가 먹을 수 있게 문밖에 걸어놨던 것인데 바람에 골판지 조각이 뒤집어져 있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소박한 나눔에 내 마음에는 감동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퍼져나갔다.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사람 사는 정이 있었다는 우리 옛 시절이 저러했을까...! 도시에서 자라 이런 작은 마음씀씀이가 그리운 나

는 그 허름한 집에서 무주상 보시의 향기를 맡았던 것이다. 앙증맞은 바나나는 바닐라처럼 맛있었다.

또 하나의 기억은 호주 Bundanoon이라는 곳에 있는 ‘Santi Forest Monastery(풀이하면, 평화 숲 수행처)’라는 불교 수행공동체에 갔을 때의 일이다. 길지 않은 일정 속에서도 부러 예약까지 하고 그곳을 찾아갔던 까닭은 외국 수행공동체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살펴보고 싶은 점은 배워오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나의 마음은 명상에 집중하기보다 관찰자로서, 보고 느끼는 것마다 조금은 분별심(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상태였다. 잠자리만 해도 내게 배정된 곳은 생각하기에 따라선 너무나 근사한 숲 속 오두막이었는데도, 나는 난로에 직접 장작을 때야 하고 그래도 자꾸만 불이 꺼지던 그 며칠 밤이 춥고 고됐기에 속으로 약간 불만을 느꼈다. 사실 우리나라 수행공동체와 비슷한 점도 많았고 마침 그때 그곳을 찾은 호



중앙모임 (02-741-4696~7)

주 원주민 할아버지가 대자연과 교감하는 영적이고 지혜로운 얘기도 들려주는 등 좋은 경험도 많았는데 말이다.

그렇게 잠깐 머물고 떠나오는 날, 나는 기차역까지 가는 길에 시내에 나가는 수행자들의 차를 얻어 타게 되었다. 차에는 불일 보러나가는 덴마크인 행자님과, 장 보러 나가는 스리랑카 할아버지, 그리고 배우인 호주청년이 타고 있었다. 그 건강해 보이는 청년을 보자, 같은 배우인데 암 투병중인 한국에 있는 내 친구가 떠올랐던 것 같다. 마음이 다소 무거워진 나는 무심코 그 친구 얘기를 꺼냈다. 예쁜 딸까지 둔 내 친구는 성품이 정직한 참 좋은 사람이자 훌륭한 배우고 연출가다. 얼마 전, 암이 많이 진행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는 씩씩하게 치료를 받고 있고, 굴하지 않고 공연도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요즘도 비용 문제로 고민이 많은 거 같다. 그런데 그때,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의 이름을 다시 물었다. 그날 저녁 'Metta(메타:자애) 기도'때 그 친구를 위해 기도

해주겠다는 거였다! 이름을 알려주자 한 국어름이 생소한 그네들은, 잊어버리지 않게 내 친구의 성과 이름을 한 명씩 나눠서 외우기까지 했다.

그곳 분들은 매일 저녁 다같이 'Metta 기도'라는 걸 했다. 힘들어하거나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거기 머무는 동안, 그러는 걸 보긴 했었지만 저 적도 너머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 대한 그분들의 진심 어린 선의에 나는 가슴이 따듯해져 왔다. 친구의 건강이 한층 호전될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그 친구는 존재조차 모르는 어느 수행자들이 그를 위해 기도를 드리겠다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빛보다 빠른 게 마음이라니까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가 닿지 않았을까. 그 후로 나도 때때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드린다. 큰 수술을 하셨다는 분, 돌아가신 분, 가출했다는 아이를 위해. 누구든지 용기를 잃지 않고 이품을 이겨낼 수 있기를…….

- With Metta.

돈이 없어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대상자를 공모하여 9명을 선정하여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수술 예후 및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자 중에는 체장암, 자궁경부암, 뇌수두증 등으로 투병중인 분들이며 선정된 분들의 건강과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본모임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승가원 장애아동들과 함께 한 청소년 여름방학 나들이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에서 요가 봉사에 동참해 왔던 청소년 봉사자들이 지난 18일 강화도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승가원 햇님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 25명과 1대1일로 짝을 이루어 도자기와 약썩 비누 만드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지지하고, 청소년 학생들은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안전 관리, 긍정적 상호작용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간에 더욱 친근감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의 후원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기부금 영수증 출력 가능

현재 중앙모임 후원회원은 홈페이지에서 <나의 후원내역>과 <기부금 영수증>을 바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 확인 및 기부금 영수증 출력을 위해서는 후원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정보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 중인 분께서는 사무국에 방문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할 것이며,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제청으로 등록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의류 재활용(리폼) 함께해요

요즘은 옷이나 소품에 대해서 각자의 개성, 창의, 디자인, 패션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새롭게 구매해 입는 것보다 유행이 지난 옷을 수선하여 새로운 개성으로 맞춰 입는 풍토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 또한 생활 속에서 작게나마 실천하는 환경운동으로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색터를 개척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연말에 불우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혼모 시설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녹색 생활을 위해 재능(재단, 디자인)을 나눠줄 봉사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활동에 관심있는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미상을 기증받습니다.

### 자원활동 안내

■ 노인요양원(진인요양원, 모희원) 자원활동  
진인요양원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놀이 활동을 합니다.(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함께 출발) 모희원은 농사일 돕기와 시설 정비 활동을 주로 합니다.(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한전 남부지점) 앞에서 모여 함께 출발)/동참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상담해주세요야 합니다.

###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대학생 봉사자 모집

거리홍보를 진행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거리에서 행복 바이러스를 널리 전파 하는데 동참해줄 활동할 성격을 가진 대학생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 친환경 실천 캠페인 함께 하실 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친환경 수세미 뜨기, 친환경 달거리 만들기,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각종 소품 리폼, 녹색나눔장

터에 도움을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 ■ 결식 이웃을 위한 밀반찬 조리봉사

매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들게 사는 어르신, 장애인, 한 부모 가정 430여 가구에 밀반찬을 조리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서로 웃어 가며 함께 하실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문의 : ☎ 02)741-4696~7

### 9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발송/ 3일(화), 오전 10시~12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목요일(5,12,26일)/금요일(6,27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2,9,16,23일)/오전 10시~오후 2

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첫째, 셋째 일요일(8,15일)/오전 9시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모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1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8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셋째 목요일(26일)/오후 12시/생명의 전화 복지관 - 자살예방 교육 및 간담회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14일(토) 신천역 입구/29일(일) 길상사 경내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4,11,25일(수)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 숲가행/첫째 토요일(7일)/충남 예산 대흥솔로시티
- 녹색나눔장터/마지막 일요일(29일)/길상사 경내



### 광주모임 (062-236-3129)

#### 9월 정기 활동 안내

- '광양 나눔 센터'에서 동참해 줄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9시30분에서 오후2시까지 진행되는 활동에 선행을 베풀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 광주모임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80개의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심공양 나눔의 집을 신설하여 저소득층과 고령층 대상으로 하루 100명분, 일천 원의 식대로 12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 5월부터 광주모임에서는 금강경 독송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은 평생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며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독송하고 알아가는 금강경시간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광주모임으로 문의해주세요.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대구모임 (053-753-8883)

#### 9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

- 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토요경로급식 및 웃음교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롬비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되살린터 봉사/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12시
- 운영위원회의/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경남모임 (055-266-0170)

#### 9월 정기 활동 안내

- 보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사

- 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수강 신청하세요. 매월 첫째주 / 셋째주 수요일 오후1시 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부산모임 (051-898-2672~3)

#### 9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3 / 이상오

### 대전모임 (042)823-0770

- 충남대 대불련 후원
- 자혜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지역불교문화행사 동참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 다라니 기도

- 일시 : 9월7일 (오후8시~10시)
- 장소 : 극락전

##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 9월14일 (오후9시~다음날오전4시)
- 장소 : 길상선원
- 법사 : 주지스님

##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9월14일 (오후8시30분~다음날오전4시까지)
- 장소 : 극락전
- 준비물 :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 9월 주말 선 수련회

- 일정 : 둘째 주말 14일(토)~15일(일)  
넷째 주말 28일(토)~29일(일)
- 참가비 : 5만원(입금순 50명 선착순 마감)

## 대입 수능 100일 기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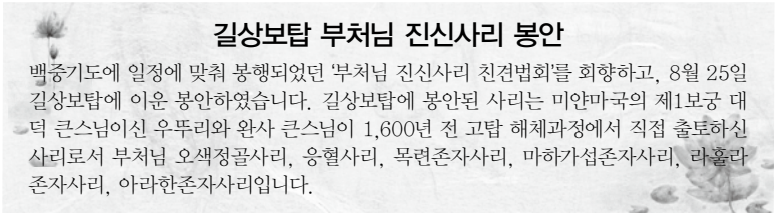
2014년도 수험생 자녀들의 원만합격을 기원하는 대입수능100일기도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기간 중 입시특별기도가 아래와 같이 봉행되오니 수험생 부모님과 불자님께서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시어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 7월31일~11월7일
- 시간 : 오후2시~오후4시까지
- 장소 : 극락전

## 추계관음기도 안내

기도는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묘약입니다. 하안거기도 회향에 이어 추계관음기도가 봉행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불보살님의 가피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일정 : 8월22일~11월16일



## 길상보탑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백중기도에 일정에 맞춰 봉행되었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회향하고, 8월 25일 길상보탑에 이운 봉안하였습니다. 길상보탑에 봉안된 사리는 미얀마국의 제1보궁 대덕 큰스님이신 우푸리와 완사 큰스님이 1,600년 전 고탐 해체과정에서 직접 출토하신 사리로서 부처님 오색정골사리, 응혈사리, 목련존자사리, 마하가섭존자사리, 라홀라존자사리, 아라한존자사리입니다.



## 봉정암 성지순례 안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국내 5대 적멸보궁중 하나인 봉정암으로 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입니다. 봉정암 '불뇌사리보탑'에는 부처님의 진신 '뇌사리'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봉정암 적멸보궁의 성지순례 인연으로 모든 불자들의 소원성취 이루시길 발원합니다.

- 일정 : 9월27일~9월28일

## 10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초하루	10월 5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10월 5일	오후 7시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10월 12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10월 12일	오후 8시30분	극락전
지장재일	10월 22일	오전 9시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0월 28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50분/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50분/ 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9시50분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월 둘째·넷째	오후 2시	적묵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교육	매주	오후 1시20분	소강당



독거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국가로부터 받는 생계비는 노령연금을 포함하여 40만원 안팎. 집이 없는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은 월세 20만원(평균)을 지출하면 나머지 20만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경우는 국가에서 생계비나 의료보호혜택조차 제공받지 못합니다. 노환으로 인해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없기에 의료비 부담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우리나라가 8년째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해보자는 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노인 빈곤률 세계 1위와 같은 통계 자료들은 지난 10년간 노인자살이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률을 높여왔음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모집된 기부금은 매월 소식지를 통해 소개된 결연 대상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것이며, 2014년부터는 지역모임과 연계한 차상위계층 결연후원사업을 통하여 난방비 및 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의 목표를 두고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의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조금씩 나아가려합니다.

지난 4월부터 캠페인을 시작하여 7월까지 모금된 기부금 현황은 2,748,500원입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캠페인 현장에서 후원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CMS 후원을 신청해주신 분들, 소식지에서 사연을 접하고 매일 2만원씩을 기부해주고 있는 안양교도소의 수감자 그리고 익명의 후원자들이 모금함이나 무통장입금을 통해서 캠페인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를 통해 모아진 마음들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결연후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의 손길을 나누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